

흥흥한 당신의 사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아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 아이폰 같은 마니아층이 두껍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다. 하드웨어에 강점을 가진 삼성은 아이폰을 빠른 속도로 벤치마킹하여 2011년 4분기부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해오다 2016년 4분기부터 다시 애플에 점유율 1위의 자리를 내줬다. 그 뒤로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하드웨어를 쏟아내며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융합에 사활을 건다.

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나선 삼성전자 - 핵심역량 미흡...적극적 M&A 전략 급선무

삼성그룹이 제작해 각 사 사내방송을 통해 내보낸 '삼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 1부 소프트웨어의 불편한 진실'이란 프로그램에서다. 방송에는 삼성 SW의 내부 평가와 현 주소, 자가 반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삼성전자의 한 부장은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찍을 꺼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에 비해 질적 성장을 못 이룬 현실을 일깨우고,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 전했다.

2016.07.04 매일경제신문 김병수

그렇다면 미술에서 작가들은 어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형식과 내용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작업에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기 어렵지만, 편의상 분리해보자. 보통 형식이라고 하면 내용을 둘러싼 표피에 가깝게 여겨진다. 작가들은 작업을 보는 이가 표층을 통해 작품 내부의 주제나 내용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은 작가마다 다양하다. 작업의 심층을 이루는 내용을 구상한 다음 그에 알맞은 그릇을 고민하거나 '어떻게'에 가까운 작업의 형태나 감각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딱딱하게 분리되지 않고 형식과 내용의 협력과 갈등의 반복으로 작업이 생산된다.

'外骨格'이라고 먹으로 곱게 쓴 글귀가 내 작업실 문에 붙어있다. 한글로 읽으면 '외골격'이다. 평소 작업에서 구조(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친구의 작업실에 간 적이 있었다. 작업실 바닥에 외골격이라고 쓴 화선지가 널브러진 채 술에 취해 얘기를 나누다 이런 말이 나왔다.

"(좋은)작업은 외골격이야, 사람은 내골격인데 살이 밖에 있고 그 안에 뼈가 있어. 외골격은 그 반대로 뼈가 밖에 있고 살이 안에 있는...예를 들어 곤충이 외골격이야..."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진 작업, 즉 내용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내용이 된 작업을 외골격이라고 말한 것이다. 친구는 집에 가는 길에 바닥에 있던 화선지를 주워 내 주머니에 구겨넣어줬다.

사진은 태생부터 문자 그대로의 '외골격'으로 태어났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서의 '외골격'이 아닌 전통적 매체와는 다른 형체로서의 '외골격'이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신기술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단단한 외피와 닮은 기계장치와 광학 이미지를 손에 쥐게 되었다. 사진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아마추어 미술에 가깝기에 근대적 미술의 신화를 무참히 깰 수 있지만, 작가들은 그 신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딱딱한 외형적 접근으로 강력한 신화를 찾고 영웅을 꿈꾸며 승자에 위치에 서려 한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주목한 사진 작업을 보면 하드웨어만 갱신하는 흥흥한 기업과 겹쳐진다. 말이 통하지 않는 에일리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딱딱한 외형을 뚫고 살이 터져 나와야 한다.